***PRESS INFORMATION*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보도 일시** | **2025. 5. 28 배포 시부터 보도** |
| **사진 설명** | **LS에코에너지의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LS-VINA 전경 및 내부 시설 모습** |
| **문의** | **강철 팀장(010-9447-7079 ,** [**ckang@lscns.com**](mailto:hjoo3@lscns.com)**) / 뉴스룸(**[**http://news.lscns.com**](http://news.lscns.com)**)** |
| **LS에코에너지, 베트남 전력청에 총 3,300만 달러 규모**  **초고압 케이블 공급**  **■ 2030년 1조 4천억 원 규모 베트남 초고압 케이블 시장 선점**  **■ LS-VINA, 베트남 유일 220kV 생산, 공급 파트너 입지 강화**  **■ IDC 전력망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, 해저 사업 현지화 가속**  LS에코에너지(대표 이상호)는 베트남 생산법인 LS-VINA가 베트남 전력청(EVN)의 송전망 구축 사업에 총 3,300만 달러(한화 약 454억 원)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.  이번 계약은 3개의 EPC(설계·조달·시공) 업체와 체결했으며, 220kV급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하게 된다. 총 계약 규모는 2024년 LS에코에너지 연간 매출의 약 5.2%에 해당한다.  이번 수주를 통해 LS에코에너지는 2030년까지 1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베트남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본격적인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 프로젝트는 하노이 도심과 외곽 변전소를 연결하는 국가 송전망 구축 사업으로, 도시 지역 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.  베트남 정부는 현재 69GW인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150GW 이상으로 확대하고, 총 1만6,285km의 220kV급 송전망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.  LS-VINA는 베트남에서 220kV급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, 현재 약 80%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. 이에 따라 향후 대형 송전 프로젝트에서도 안정적인 공급 파트너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.  LS에코에너지는 IDC 전력망 구축과 풍력·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연이은 수주에 성공하며, 올해 창사 이래 1분기 기준 최대 매출과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. 최근에는 해저케이블 사업 현지화와 희토류 공급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. | |